

## 2) 삼국시대

백제가 순천지역을 복속시킨 때는 대략 369년(근초고왕 24)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고고학적 발굴조사 등에서 나타나는 의문점이 적지 않다. 이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문화양상이 한강이나 금강 유역에서 드물게 보이는 백제의 유물·유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백제의 통치나 영향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선사 이래 신라통일기까지 자생적이고 토착적인 생활문화를 형성, 지속시켰으리라 추측된다. 즉 백제의 중심지와 별개로 전래의 토착적인 주거문화를 형성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백제의 주거문화는 자료가 빈약하여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선사시대 및 마한시대의 많은 고고학적 자료와, 특히 원형 수혈주거지의 양상이 내륙보다 전남 서해안이나 경남 남해안과 상통하고 있어서 주거문화도 이들과의 교류·전파의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남해안으로 인접된 곳은 낮은 구릉들로 연결되지만, 내륙과는 소백산맥의 험준한 지맥으로 둘러싸인 자연지세는 문화교류를 내륙보다는 광양만이나 순천만으로 연결, 형성되게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순천지역은 『후한서(後漢書)』 동이전 한조(東夷傳韓條)에 마한지역의 “읍락잡거(邑落雜居) 역무성곽(亦無城廓) 작토실형여총(作土室形如塚)”이라는, 즉 지상에 축조한 초가에서 발전된 가구식(架構式) 지상가옥이 발전되었을 것이다. 특히 경남 남해안과는 지금도 같은 민가 형식인 남부형에 속하듯이, 가야나 신라지역의 주거양상과 흡사했을 것이다. 이 지역은 남해안 특유의 고온다습한 해양성 기후대에 속하고, 바다를 통하여 문화를 교류해왔기 때문에 신라나 가야의 가형(家形)토기 등에서 볼 수 있는 고상식(高床式) 주거인 마루가 일찍부터 보편화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백제시대 고구려로부터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온돌이 이 지역까지 보급되었는지는 의문이다.